

봉사·인턴십·지원서 준비... 여름방학 알차게

■대입 가이드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일제히 여름 방학에 들어갔다. 풀러튼 학군은 올해 어느 해보다 일찍 시작된 여름방학으로 아직 여름방학 준비를 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당황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어바인 학군은 여름방학을 6월25일까지 시작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자신이 따로 계획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위해 학기 말 테스트도 다른 학급생보다 일찍 치러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AP 테스트가 끝나면 바로 학기 말 고사를 치르고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것이 학생들의 계획에 차질이 없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인다. 동부의 명문 사립들도 6월 초에 일제히 여름방학에 들어가 캘리포니아가 고향인 학생들이 눈에 띈다. 일찌감치 여름방학 플랜을 세운 친구들은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이웃 나라로 봉사를 떠난 학생들도 있고, 이미 인턴십을 시작한 학생들도 있다.

올 가을 대입 지원서를 제출해야 할 시니어가 되는 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대학 입학 지원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제 지원할 대학들을 어느 정도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조기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여름방학동안 인턴십이다, SAT 준비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지라도 대입 지원서에 들어갈 개인 소개서인 에세이를 어느 정도 가다듬을 잡아놓고 완성해 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야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는 12학년 1학기 수업에 매진할 수 있다.

UC계열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두 개의 에세이를 완성해 두어야 한다. 공통지원서에 이제는 1개의 메인 에세이가 있다.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추가 원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의외로 많은 학부모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들의 종류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신다. 특히 미국의 대학 시스템에서 유니버시티와 칼리지는 무엇이 다른 점인지 궁금해 하신다.

*** University(유니버시티)**
일반적으로 유니버시티들은 대학



지나 김
시니어 디렉터
어드미션 마스터즈
866-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대학입시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춘 대입지도와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소셜네트워킹을 통한 소통에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원 과정과 전문대학들이 함께 있으며 리서치를 좀 더 강조한다. 유니버시티는 학생 수가 대부분 많고 대학원이 있어서 전체 학생 수가 많아 대학 시스템이 아주 방대하다. 그렇지만 모든 대학이 대규모인 것은 아니고 모든 유니버시티가 박사학위나 전문학위 과정을 수여하는 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대학들로는 하버드 유니버시티,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예일 유니버시티,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처럼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을 쓰는 사립대학들이 있고, UC의 경우 University of California처럼 각각의 대학 이름에 주의 이름을 붙이는 주립대학들이 있다. University of Texas, University of Michigan 등도 주립 대학들이다. 사립대학으로 University of Pennsylvania가 있다. 대학 이름에 State를 붙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사립대학으로 오해하고 있는 퍼듀 대학은 주립대학이다.

*** Liberal Arts College (리버럴 아츠 칼리지)**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General Education, 즉 교양과목을 중요시하여 근본적인 학문분야인 읽기, 글쓰기, 토론, 논리력 등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여 준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따라서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녀와 잘 맞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진학도 적극 추천한다. 대부분 학생수가 작고 학사학위 과정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기본 실력을 크게 향상시켜 대학원 진학률이 아주 높다. 칼리지라는 이름의 대학이 모두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다. 보스턴 칼리지나 다트머스 칼리지 등을 보면 학생 수가 많고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아니다. 대표적인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앰허스트, 스와츠모어, 포모나 칼리지 등이 있다. 미국에는 국립대학으로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5개의 사관학교들이 있다. 그리고 주 정부가 지원하는 주립

■대입 새 트렌드

매년 우리는 대학 입시 동향에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를 보게 된다. 올해 주목해야 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보자. 매년 대학들은 새로운 것들을 적용하고 입학사정관들은 새로운 특정 요구사항들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입학사정을 한다. 학술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특정 대학들은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적용하고 진화시켜 나가려는 의지가 더욱 강하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교생들의 경우, 새로운 경향의 일부가 과연 어떤 것들인지 각 대학들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다. 2014년 대학들이 새롭게 적용시키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2014년 가장 일반적인 경향 중 하나는, 특색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지수에 관해서 크게 포커스를 둔다는 것이다. 특정 대학에 가고자 하는 욕망이 만들어내는 학생들의 관심지수, 이것이 바로 대학들이 학생들을 꼭 뽑고 싶은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학생이 자신의 대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지수는 학교 탐방이나 카운슬러와의 만남 그리고 대학 입학지원서에서 보여주는 에세이가 그 레벨의 측정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트렌드는 열린 생각을 하는 특별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다. 예를 들면 대학 입학 에세이는 매우 추상적인 것에 관한 질문이 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학생들에 관한 관심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간혀 있는 생각이 아닌 절대 상상하지 못한 대답을 했을 때 그 지원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대학의 교실 환경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게 하기 때문이다. 창조적인 분석으로 어떤 특정한 필드에 관계없이 그들의 새롭고 열린 생각이 대학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 대학의 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몇 개의 새롭고 흥미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지원자들이 자신의 대학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킹을 통해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면 쓸데없는 내용들이 있는지 살피고 깨끗한 자신의 페이지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소셜미디어 페이지가 누군가에 의해 조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답답지 않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대학이나 대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역시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살펴보고 과연 자신의 대학이나 직장에 잘 맞는 지원자인지를 살피게 되는 것이다.

■점차 지원자가 다녔던 학교에서의 성적 순위에 대한 포커스가 줄어들고 있다. 갈수록 더욱 더 많은 대학들이 입학사정에 있어서 교내에서의 학점 순위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지원자가 교내 1등이든 아니면 50등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가진 다른 것들에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다고 인식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변화라고 보인다.

대학이 있고, 연방 정부나 주정부의 재정보조 없이 대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립대학들이 있다. 지원할 대학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진지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대학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필요에 맞게 대학 지원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지원 대학이 사립인지, 주립인지 학비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등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지원 대학을 구성해 나가자. 만약 UC계열 지원 계획을 세웠다면 UC 에세이와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공통 지원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립대학 지원을 함께 하려 계획

했다면, 여름방학 동안 공통 지원서에 들어갈 내용들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자. 대학 입학 지원서의 추가 지원서를 보면 각 대학 별 질문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지원자와 잘 맞을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원서가 준비되면 뒤로 미루지 말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접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최상의 방법이며, 대학 랭킹보다는 자신과 잘 어울리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익하고 보람 있는 대학생활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학전문·21년·수천명 가르친 경험으로

수많은 성공사례

학생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즉시 (해결) 가르쳐 줍니다

- Test 준비
- Homework
- 모르는 부분만 정확히 즉시 해결
- 근본적으로 수학 잘하도록
- 특별한 상황에 있는 학생
- 특별한 목적, 목표를 가진 학생
- 1:1 개인지도
- 1:2 개인지도
- 특별 Group 지도

- 모르는 것만 즉시 배워서 알고 싶을때, 학생이 준비해 오면 어떤 문제라도 즉시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줍니다.
- 급한경우, 필요한 경우 1번~3번만 개별적으로 배울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강

- (1) 학교진도 공부 Class
6th~12th, preAlg, Alg1, Geom, Alg2, Trig, pre Cal, (AP) Cal.
- (2) Test 준비 Class
6th~12th, preAlg, Alg1, Geom, Alg2, Trig, pre Cal, (AP) Cal.
- (3) 예습, 복습 Class
6th~12th, preAlg, Alg1, Geom, Alg2, Trig, pre Cal, (AP) Cal.
- (4) 특별한 목적, 목표를 가진 학생을 위한 Class
학생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 (5) 근본적으로 수학 잘 하도록 하는 Class
논리적인 사고력, 응용력
- (6) 중학교 총정리 Class
중학 3년 전과정 총정리 Course
- (7) 고등학교 총정리 Class
고등 3년 전과정 총정리 Course
- (8) SAT I, II 수학 Class
핵심, 요점정리, 꼭 알아야할 공식과 개념 200개

확실한 효과

- 평범했던 학생이 수학경시대회 수상자로
- F, D, C였던 학생이 B, A로
- 평범했던 학생이 하버드, 스탠포드 합격자로
- 수학을 싫어했던 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으로
- 실수를 너무 자주하고 배운것을 잘 잊어버리니까?
- 공부습관이 나쁘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 응용문제를 못하거나 논리적인 전개과정 능력이 없습니까?

TEACHING 법칙

- 자체 개발 교재 사용 또는 학교 교과서 사용
- 교과서 내용위주, 칠판강의
- 선 응용 후 개념의 법칙, 3단계 System
- 1시간 30분씩 1주일에 2번 (또는 1번) 수업

■ LA, OC 뿐 아니라 CA 전지역 그리고 동부지역, 중부지역 등 타주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수학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Since 1994
필그림 수학 전문학원
LA / OC (213)384-2400

- LA : (213) 384-2400
- Fullerton : (714) 738-5571